

마하 主義에 對한 片想(草稿)

蘇哲仁

社會의 모든 方面에 있어서의 動搖와不安과 混迷의 現象은 哲學과科學의 理論에까지 反映되어서 世界觀及그根本思想에對한改造와創造(?)와變革을論하게 되었다. 卽哲學及理論의 危機에直面하여 그根本的轉換의 必要를自認하였으며 따라서 世界觀에對하여 根本的으로 다시觀察하여야하며 檢討하여야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現實的인 것과 理性的인 것이相反함에 있어서는- 『헤-겔』은 資本主義의成熟期에 있어서 『理性的인 것은 現實的이며 現實的인 것은理性的인 것이라』고 말하였다-現實에立脚하여 理性的인 것에 있어서이 矛盾을 排除할가 그렇지아니하면 理性的인 것으로써 現實的인 것을理解하며 或은強히演繹할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인 것은 理性的인 것으로演繹하던말던 理性的인 것과는獨立的으로 그本質的運動性에依하여進展한다. 따라서 그것에內在한 矛盾을 더욱明白하게하며 그것의誤謬를摘發한다. 여기에理性的인 것에대한 懷疑가發生한다. 따라서哲學에있어서는 存在와思惟와의關係에對한根本問題로 돌아가고만다. 그런故로 哲學에있어서도따라서 哲學의發達史에 있어서 한學說의 性格的說明이나發展이아니고 그根本的變革의問題다. 이런때의性格의 現象으로 哲學, 科學에對한 懷疑不安 따라서哲學에있어서도 主觀的觀念篇 理論的虛無主義 漫漫主義及懷疑論등이盛興하며 科學에있어서의非合理性 形而上學化 或은 理論의否認等여러가지形態로서出現한다. 그뿐만아니라 科學과哲學과는 密接한關係가있어서 兩者가 서로相助함에도不拘하고 形而上學的思想으로 因하여 兩者의關係를否認하며 觀念的으로兩者의關係를意識的으로分離시키며 否認한다. 이와같이哲學과科學의 分離는 理論的把握을 否認함은勿論이지만 現實的存在를 否認함에일은다. 그結果는 中世宗教的傾向으로돌아가며 和的 合理的發展을 根本的으로 阻止이룬다. 現代科學界의明星 量子論創始者로有名한 物理學者는 『...한 特殊한科學의 領域에서出發하여 全然物理學의 性質을가진 한連續의問題를取扱하여왔다. 그러나 이런 것은 單能한感覺的知

覺의世界에서 우리를實在한形而上學의世界에로 인도誘導하였다. 그리고 이形而上世界는 그것은直接알수없다고하는 認識의不可能性으로써 우리에게直面하고있다. 그것은 神秘의王國이다. 그것은 그本質은 人間의 心的概念作用의 힘으로서는 理解할수없는世界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了解하려고苦鬪를繼續할때에는 그調和와美를認知할수있다』고하였다. 여기에서 物理學者『플랑크』는 科學者가아니고詩人이다. 神秘性을發見함으로써의 神秘主義的詩人이되고말았다. 벌써科學者는 아니다. 『플랑크』에게는 인제는 理論的性界는彼岸的存在가될 詩的直觀의世界일뿐이다. 이것은 科學에있어서의 自己矛盾이다.

近世哲學의 合理論의始祖가되는 『데칼트』는 封建制度의 否定期에있어서懷疑하는 것이 眞理라고하였다. 즉 『모든것에對하여疑心한다』(de omnibus dubiandum)고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封建制度의否定期인同時에 資本主義의發生期다. 다시 『데칼트』는 그以上더懷疑할 수 없는存在를發見하였다. 그것은 有名한 『나는생각하기 때문에 나는존재한다』(cogito ergo sum)고하는命題다. 여기에는 資本主義的個人主義의卵子가胚胎하였다. 그러나 『데칼트』는 近世哲學에있어서 發見한『自我』를 神에從屬시키였기 때문에 完全히 그 舊套를 脫穀할수없었다. 『데칼트』의哲學은 資本主義의黎明期에있어서는 그合理論으로써 進歩的이었지만 乃終에는 反動的이되였다. 이때에는 벌써 理性的인 것이 現實的이아니었다. 『우리의思想과 우리를包圍하고있는 外的世界와의 關係에對한問題는 모든哲學과 모든科學的理論에 있어서의 第一主要한 一이다』

獨逸文化發展의轉換期는 十九世紀中葉이다. 이것은獨逸에있어서 機械文明이 迅速發達하게된 時期다. 따라서 自然科學이 勃興하여 獨逸에있어서 偉大한 自然科學者가輩出하였다. 따라서 모든思想家며詩人은 荒唐無稽한것 唯心論적인것 浪漫的인것을 全部拋棄하게되였다. 그뿐만아니라 思惟의先行性 或은그 優越性을否認하고 實在論的見解가出現하였다. 그런故로 宗教에있어서도 從來에있어서는 神이人間을創하였다고한 것을 이때부터는 「種屬或은 人類으로써의人間이 그理解力과感情으로써도 理解할수없다고생각한 모든物件에서 그時間에 應하여神을創造하였다」고하였으며 「人間은自身의精神을 모든事件 모든制限을 超越한絶對的인것 超感覺的인것으로하였다」即「人間은 人間自身의 精神을神化하였다」

이趨勢는 哲學에도反映하여 轉換의意味를賦與하였다. 從來에있어서는 「無限한精神이 自己發展을行하며 그發展할때에 말하자면外界에出現하며 또는보이는 形態及段階로서 物質的世界(中略)를發生시킨다」고하였으며 그속에內在

한힘으로써 그自力으로서의秩序를가지며 그發展한다고하였다. 그것이 이때에 와서는 「精神的인 것은 物質的인것이없이는 存在할수없다」 고하였으며 그것은 有機的機能이며 理性은人類에있어서의 그發展이라고하였다. 精神은 特殊한힘으로써存在하며 그것은 恒常物質과結合하여 存在하며 或은平行하여作用한다고하였다. 이와같은 自然科學的機械論的唯物論은 當時의哲學者들에게 큰影響을주었으며 따라서 哲學者들은 이唯物論(自然科學的機械論的)의思想을 많이 攝取하게되었다.(唯物論者나觀念論者를勿論하고)

哲學과科學과의關係는 獨逸에있어서만 그런것이아니라 哲學全史에있어서 密接한關係가있어서 相助한다. 더욱이와같은때에있어서 哲學과科學과의 密接한關係는勿論이다 그러나 哲學이科學에對한關係보다도 科學이哲學에對한關係가 거진絶對的이었다. 『룻체』(Rudolph Hermann Lotze, 1817-1881)는 科學과哲學의融合을企圖하였으며 根本的으로苦心한思索家다. 그러나 『룻체』는 『演奏하기 前에 樂器의調子만마추는것』이라고하여 認識論을 重視하지 아니하였다. 그뿐만아니라 오즉 自然科學의發達 充分치못한이때에있어서 人間에對한解釋이 아즉不完全하여 自然及人間에對한美的情操는 自然科學의唯物論的發展을 하였을뿐만아니라 唯物論的發展에도 支障이되었다. 그런故로 『룻체』의 根本敎會은唯心論的이며 唯物論的見解에反對하였으나 物質的事實을承認하였으며 結局은物質的快樂과 形而上學及道德에있어서의 唯心論的原則을 調和시키려고하였다. 여기에 『헤-겔』(Ernst Haechel, 1834-1919),等 一元論者들은 心物一元論을主張하여 物質과 『에넬기-』는分離할수없는것이라고하였다. 그런故로 科學의發展은 前世紀後半에있어서의 獨逸哲學의 모든問題의中心이었다.

여기에 『랑케』(Friedrich Helbert Lange, 1829-1875)는 『唯物論史』를通하여 特殊한科學에對하여서만 唯物論을容認할것이라고하여 實質的에있어서는 唯物論을否認하였다.即 『칸트』의 根本原理를 發展시킨同時에 『科學은 아모리唯物論的結論에到達하여도 宗教는아직重要な것이라』 고하였다.

이와같이 唯物論의勃興에따라서 科學의發展에 依하여 그것을部分的으로는 認容하면서도 全體的에있어서는 結局觀念的인(觀念論과 唯物論의 相爭期에있어서) 自然科學者인哲學者 『마하』가出現하였다.

『마하』(Ernst Mach, 1834-1916)에있어서는 心理的世界와表象的世界만이 實在的이다. 그런故로實在的인것은 內在的이며 體驗한것만이存在하며世界는 直接意識의 『事實』일분이다. 그世界의內容은 感覺及知覺의總體며 그것으로因하여 表象이成立된다. 即第一次的인 것은 外的世界가아니고 知覺의總體다. 여기에서 『마하』主義는知覺論으로빠졌으며 따라서 모든實在的世界에

對하여서는 아모것도알수없다고하는 不可知論的歸結에到達하였다. 『플랑크』는 그세계를 神秘의王國이라고하였다. 外的世界는自己의 心理的事實으로써 成立되였기 때문에 『마하』에있어서는客觀的實在는否의된다. 그反面에 表象을唯一한實在로만承認하기 때문에 主觀認表象은世界를創造할수도있다. 이것이浪漫主義的思想을形成하며 主觀的思惟는 어떠한것을 勿論하고眞理다. 그러나 事實上 現實的인 것이 自己의主觀的表象과相異하며 相伴하지아니하기 때문에 懷疑의不安을느낀다. 萬一에 그距離의差異가甚한때에는 그러나 어떠한手段으로서든지 克服(?)하려고함에있어서 理論을否認하게되며 非論理的이며 極度の反動性을가지게된다. 認識을否認함으로써 感傷主義로 或은宗教的傾向을가진다. 그뿐만아니라 世界는 나의創造라고하며 畢竟은 自身의地位에까지創造한다. 이와같이 認識을否認하며 따라서 知的把握을 肯定하지아니하는 것은 直覺主義로變하고만다. 船果는無에서有를創造하기도바라며 自身의 어떠한 行動이던지 是認하게되니 『行的哲學』이되고만다. 『과시즘』前後의 非合理主義와 相通한다.

表象의世界만이實在的이기때문에 實在와表象은同一하며同質이다. 存在와思惟間에는 어떠한 差異도없다. 따라서 自我와世界사이에는 何等對象의關係는 없으며 全世界는 內世界와外的世界를論하고 同一한要素도成立되였다. 그런故로 存在와思惟는同質이며 一元論的이다. 自我는實在를創作함으로써 그中에서 統一原理를發見한다. 여기에서는 個體와全體가同一化된다. 그同一化는 事實上은全體性을否認함이다. 그런故로 全體的把握이없으며 統一原理가없다. 이와같은 『마하』主義는 科學에있어서는 部分的觀察에빠짐으로써 前述한바와 같은 『플랑크』의神秘의王國에到達하며따라서 科學은何等哲學과關係를必要로하지아니하고 다만宗教와의 必然的關係를論하니 科學에있어서의反動性이다. 哲學에있어서는 亦是懷疑論으로 或은素朴한部分的知識 또는常識으로돌아가고만다.

實在를知覺의總體인 表象이라고하며 兩者를同一한것이라고하였기때문에 對象的關係는全然없다. 그러나 感覺을喚起시키는 어떠한對象이外部에存在한 것은 否認할수없다. 그것을 『마하』는 『環境』이라고하였다. 그러나 이 『環境』이라고하는것은 客觀的實在의意味가아니다. 그러나 『萬一에그것이 우리와 無關係하게存在하면 萬一에그것이主體와竝立하여 感覺의特質을決定하는 客觀的條件이된다면 그러면 『環境』이란 우리의 外部에實在한外的世界의 概念을表하는것別名인것은明白하다』 이것은 『마하』主義에 있어서의矛盾이다. 그뿐만아니라 『마하』는概念으로써 그根本矛盾을解決하려고한것이다. 그것은 또唯名論의非難을 免치못한다. 卽實在에對하여 그名稱으로써概念的

로否認하려고하여도 存在는그存在性を喪失하는것이아니다. 換言하면他人의 財産을 내가생각하면 그것이 나의所有가되는것이아니다.

客觀은 主義的內容에不過하기때문에 對象에對한統個性이없다. 그뿐만아니라 客觀的世界를否認하고 各個人의體驗을基準으로하기때문에 客觀的眞理가 成立되지아니한다.

따라서 各個別的體驗을基準으로하는 體驗의世界에는 眞理와誤謬의區別이없다. 虛無的이다. 무엇이던지 課與된體驗이면眞理며 兩者의根本은同一하다. 그러나 決코眞理를否認하지아니한다. 그러면 眞理性에對한解決은무엇인가. 그것은 一定한體驗이 어떠한實用的價値를가졌느냐 아니가졌느냐하는데있다. 이것은다만 生物學的基準의價値判斷에不過하다. 卽客觀的으로 眞理인가虛僞인가가問題아니다그自身에對한効用如何에있기때문에 그眞否를勿論하고 科學이나哲學은 自己를假裝하며 或은創作한다. 이點은「푸락마티즘」과共通되며 언제던지優勢에追從하기쉬운宗教的氣分과相通한다. 實質的對象의 有無를不問하고 一時自己에게 自己들에게有利만하면 그것을信仰하며 그것을最高의理論의 武器로하며 그뿐만아니라 그것을概念化함으로써神化한다. 따라서 自己自身內에「神」을形成한다. 卽 個人主義的宗教化한다.

이觀念論的主觀哲學은 한便에있어서는 唯物論과相爭하기爲하여 또한便에있어서는 現實의客觀的變化에依하여 다른觀念論的哲學과의 더緊密한關係及 折衷을 企圖함으로써實在的存在를心的의表象이라고한것을 다시人間的인 것으로變裝하였다. 그러나 이人間的이란것은 亦是純精神的存在다웨그러나하면「自我와世界사이에는 決코 絶對的分裂은없다」따라서「人間은다만 現變된 그대로의 萬物에直面하여何等獨斷的理論或은 偏見도없이 萬物을觀察하여記述한것이라」고하였다. 이것은 實在論과觀念論을 融合시키려고한것이며 非論理的이다. 이非論理的인것이 或은理論을否認하려고하는것이니 오히려「마하」主義의 意味가여기있는것같다. 따라서 科學과哲學은相反하며 或은全然關係없다고하므로써 自己矛盾의深淵에빠졌다. 그뿐만아니라「마하」는 모든經驗을感覺으로써 解決하였기때문에 科學은이와같은 經驗이連續以外的아모것도求하지아니하며 그連續을 敷衍하므로써 一層經濟的連續內에我를發見한다고하였다. 이와같은 思惟經濟(Denkoeconomie)의 概念을發展시키므로써 現象의一部分의暫定的인「環境」을重要視한것이다. 그런故로眞理와價値는「環境」에存在할것인가. 이것은 客觀的眞理를否認함이며 그限에있어서 反動的이다.

「마하」의絶對論的主觀論은 存在와思惟의同一性 存在의實在性の否認「뿐만아니라 實在論과觀念論과의 融合은結局科學에있어서나 哲學에있어서

나 自己矛盾으로 빠지고 말았다. 科學과哲學과의 相助를否認하므로써 그矛盾을 深刻化시키었으며 永永深淵에 빠지고 말았으니 그것은 또한便에있어서는 自然科學的機械論的影響에도 依存한다.

今日에있어서의 宗教的氣分の勃興은 「마하」主義的要素도 많으며 그結果가 더욱 「마하」主義的傾向을 助長시킨다 그結果는 더욱混迷로 빠지며 「無」에서의生産을 絶叫할뿐이다. 哲學이나科學的理論뿐만이 아니라 世界觀에있어서까지 그危機的非常時를克服하며 脫出함에는 科學과哲學의辨證法的研究가 絶對必要하며 그結果는 世界를가지지 못한 世界觀은世界를가진 世界觀으로變한다—「마하」主義는 世界를가지지 못한 世界觀이다—